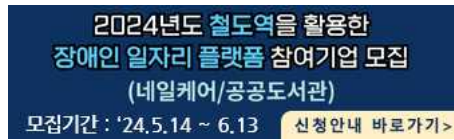


전체기사 오피니언 동영상 복지 인권 문화/체육 노동 교육 자립생활 정책 정보세상 단체 전국넷 기획특집

많이 본 뉴스

- 발달장애 이유로 병원 뺑뺑이 "발달장애 인 건강권 보장하라"
- 죄송한데 '복지카드' 말고 다른 신분증은 없으세요?
- ENA 드라마 '크래시'에서 교통사고 범인은 귀신이었다
- 늦깎이 중학교 졸업 장애인이 '열악한 현실 속 가로막힌 고등교육'
- 이윤으로 결정되는 장애인 생존권 "경장 영양제 품질 문제 해결하라"

-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2024년 올해의 장애인상



자립생활

미비한 주거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장벽'

공공임대주택 '그림의 떡', 신청자격 완화 한목소리

최석범 기자 입력 2015.12.02 16:15

키워드

#임대주택 #자립생활 #조한진
#취득요건 #탈시설

[자립생활] 많이 본 뉴스

게시판

[공지사항] 2023년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공지사항]** [공고] 2023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구인/구직]**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로켓 설치업무 지원 (하루 8시간 재택 근무)**[구인/구직]**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인사 관리지원 (오피스/재택 근무 병행)**[모집/공고]** [모집] 사제로 배우는 장애인 진로와 직업준비(5월 29일)**[모집/공고]**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 무료교육 [2024 반도체 설비유지 보수업체(PM) 맞춤형 중

댓글 0



다운로드 프린트 공유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한목소리 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임대인의 차별, 적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이유로 자립을 위한 장애인의 주거보장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가족 또는 시설의 보호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고자 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자립생활의 시도는 굉장히 어려우며, 미비한 주거지원 정책은 자립생활로 진입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삶 주기에 있어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시설에서 자립생활센터로 임대주택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성공코스
OFCOURSE
오브코스 그룹



귀속 이명...마침내 극복하
"이것" (실제 후기/ 불평금
메디컬뉴스



(왼쪽부터)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와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
사1과 이석준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조 교수는 "장애인 우선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독립돼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거주인은 시설장
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시설거주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
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9년 이전까지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이 개정돼 중증장애인의 우선입주로 변경됐다"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전체의 3~5% 밖에 안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비중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의 완화 등 주거지원정책 확대라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
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이석준 과장은 "탈시설의 최소조건은 당사자가 몸 담을 수 있는 거주
공간의 유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거의 전부와 오랜 시간 시설
에서 시설주의 동거인으로 산 장애인이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힘들게 현실"이라면서 "주거지원
정책과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고}2016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설문]2015년 장애인에 10대 키워드 설문조사(추첨 통해 왁스 타블렛 증정)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il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ilnews@abil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il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NCS자격개발원
무료 수강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보험가입

진짜 작가 데뷔하고
싶다면?

당연히 공
점점하셨

광고 한국NCS자격개발원

광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광고 창작의날씨

광고 하우빌드

교보문고가 작가데뷔 도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 BEST댓글

근로장려금 지원금 신청

330만 원을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분만에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